

버들붕어

Round tailed paradise fish
| *Macropodus ocellatus* (Cantor, 1842)



분 포 압록강과 낙동강을 포함한 동해 남부의 하천에 분포한다. 국외에는 중국 동북부와 양쯔강에 분포하며, 일본에 서식하는 버들붕어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다.

형 태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주둥이 끝은 뾰족하다. 아래턱은 윗턱보다 길고 몸통에는 옆줄이 없다. 수컷의 등지느러미 끝은 길어서 꼬리지느러미 중간부분까지 이르고 뒷지느러미 또한 마지막 3~4번째까지 지느러미 어린줄기가 길게 나와 꼬리지느러미 중간부분까지 이른다. 꼬리지느러미 끝은 둥글고 암컷은 수컷에 비해 등과 뒷지느러미 끝이 길지 않다. 체색은 전체적으로 연한 노란색을 띠고 체측에는 10개 이상의 홍색 횡반이 있으며 아가미뚜껑 위에는 작은 청색반점이 있다.



버들붕어 암컷



버들붕어 치어



혼인색을 띤 벼들붕어 수컷



1) 환경조성

벼들붕어의 사육환경은 유속이 없고 빛이 잘 들며 수면에는 은신할 수 있는 부상수초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생태 습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속이 있는 곳에서 사육할 경우 벼들붕어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빠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장기간 지속되면 폐사가 발생하였다. 바닥에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것을 깔아주고 수초는 부상수초 또는 수면까지 줄기가 길게 성장하는 종을 심어주면 벼들붕어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면서 번식을 위한 산란장소가 되기도 한다. 유속은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포발생기를 이용한 저면여과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혼인색을 띠며 암컷보다 등과 뒷지느러미가 길다.

2) 먹이주기

먹이는 시판되는 관상어용 사료를 먹으며 입이 작기 때문에 사료형태는 부드럽고 물에 잘 분해 되는 종류를 주는 것이 좋다. 먹이공급 횟수는 3 회/일 정도가 적절하며 남은 잔여 먹이찌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씩 천천히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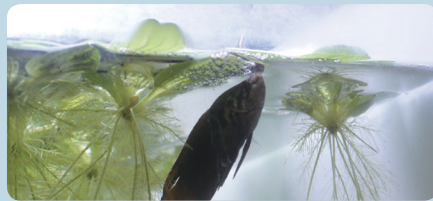


부상형 배합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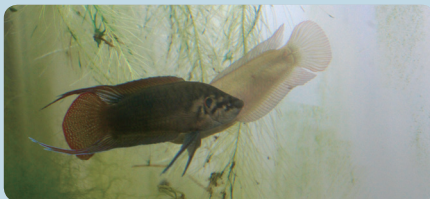
버들붕어 산란행동



1. 수컷의 산란장소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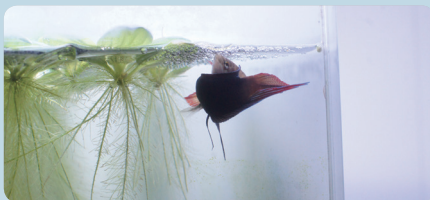
2. 산란장소(거품집) 만들기



4. 암컷을 산란장소로 유인하는 수컷



3. 성숙한 암컷



5. 수컷이 암컷을 몸으로 휘어감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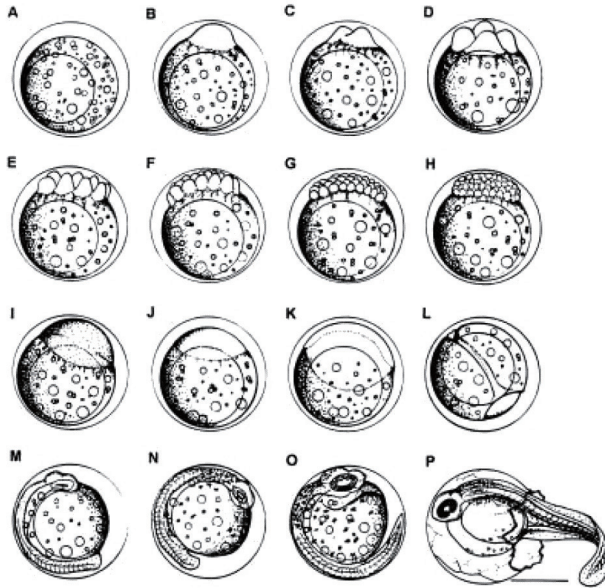
6. 산란과 동시에 몸 전체가 360도 회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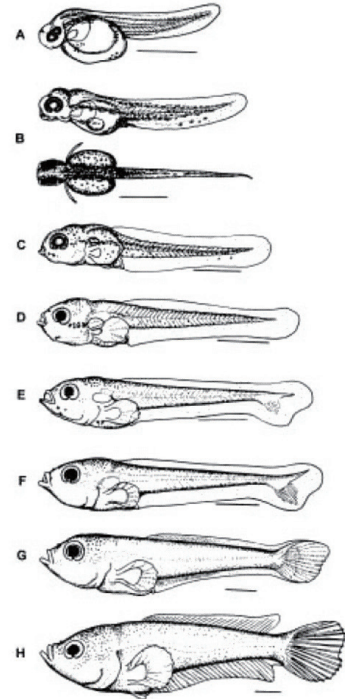
8. 거품집에 산란한 수정란



7. 수정된 알을 입으로 물어 거품집에 고정시키는 모습



난발생 과정(송과 최, 2000)



자치어 형태발달(송과 최, 2000)

3) 번식방법

버들붕어의 산란시기는 7~8월 여름이며 수조 내에서 번식을 유도할 때는 부상수초를 많이 넣어주고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조크기는 2자 정도 되는 곳에 복부가 팽만한 암컷을 2~3마리 넣어주고 수컷은 이차성징인 혼인색이 짙게 나타난 개체를 1마리 넣어주면 수컷이 부상수초 사이에 거품집을 짓기 시작한다.

거품집이 완성되고 산란준비가 끝나면 암컷은 거품집 주변을 유영하며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수컷은 암컷을 몸으로 휘어 감싸고 암컷의 생식공에서 알이 산란과 동시에 수컷의 방정으로 수정이 된다.

알은 침성란으로 바닥에 가라앉지만 수컷이 떨어진 알을 입으로 물어 거품집 속에 고정 시킨 뒤 부화하기까지 보호하는 부성애를 가진다.

부화 직후 자어는 난황을 가지고 있어 수초에 부착된 상태로 2~3일을 보낸다. 입이 열리면서 먹이활동을 시작하는데 입 크기가 작아 인조푸리아 또는 로티퍼 등을 주고 성장하면서 알테미아 부화유생 또는 배합사료를 준다.